



춤으로 행복해지기 :

성인의 무용향유 체험방식에 대한 질적 탐구*

권선영** · 최의창(서울대학교)

국문초록

본 연구는 무용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학습자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무용을 즐기고 누리는지를 살펴보는 데에 목적이 있다. 그리고 무용을 향유하는 방식이 그들의 행복한 삶과 어떠한 관련을 갖는지를 탐색하였다. 참여자들의 무용향유체험에 담긴 내적 속성과 의미를 파악하는 일에 주목하기 위해 현상학적 체험연구(van Manen, 1990)에 근거하여 약 18개월 간 연구를 진행하였다. 전형적 사례 선택 기법(Miles & Huberman, 1994)을 통해 문화예술교육 현장의 대표적인 사례 두 팀(‘삼삼오오’팀, ‘춤꽃마실’팀)과 일반적인 발레강좌팀을 선정하였다. 이 세 팀의 참여자들로부터 학습자 18명, 교육자 6명을 연구 참여자로 최종 선정하였다. 자료의 수집은 면담(심층면담과 그룹면담), 수업관찰, 자기보고식 일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자료의 분석은 Wolcott(1994)가 제안한 기술, 분석, 해석의 순환적 과정의 큰 틀 속에서 van Manen(1990)이 제시한 현상학적 체험 연구에서의 자료 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무용향유체험의 방식은 크게 ‘기능적으로 향유하기’, ‘유희적으로 향유하기’, ‘공헌적으로 향유하기’의 세 가지 방식으로 나타났다. 이 세 가지 방식은 연구 참여자들의 삶의 맥락에 따라 유기적으로 순환 및 확장하는 특징을 보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무용향유 체험에 대한 보다 장기적인 연구와 공동체적 관점에서의 후속 연구가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주요어 : 무용향유체험, 춤, 행복, 기능적 향유, 유희적 향유, 공헌적 향유

1229-7836/17/459

Copyright© 2017 by the Korean Society of Dance Science

Submitted for publication March 2017

Accepted for publication April 2017

* 이 논문은 저자의 2017년도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일부를 수정, 보완한 것임.

** 교신저자 : homoartex@snu.ac.kr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것은 누구나 염원하는 일이다. 물질적 풍요만이 행복과 성공의 척도였던 과거를 지나, 최근에는 삶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인간의 욕구가 ‘생리적 존재’, ‘안전’, ‘소속’, ‘자기존중’, ‘자아실현’의 순서로 발생한다고 본 Maslow(1970)의 욕구 이론에서처럼, 결국 인간에게 최고 상위의 욕구는 육체나 물질보다는 정신적인 것에 있기 때문이다(김운태, 2009). 오래 전부터 선진국에서는 문화와 예술의 중요성에 무게를 실어 왔다. 경제성장은 더 이상 의미가 없으며 문화와 예술에 기반을 둔 다양한 유형의 콘텐츠 개발 및 인력 양성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일찍이 예측하며 국가적 차원에서 예술과 문화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3; Oswald, 1997). 문화와 예술이 21세기의 새로운 키워드라는 생각이 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이러한 변화가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특히, 2005년 문화예술진흥법의 제정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다양하고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다. 최근 정부에서는 ‘문화를 찾고, 쉬어, 행복을 나눈다’라는 문화예술 정책비전을 제시하며, 문화융성을 확산하고 이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전략을 추진해왔다(김홍태, 김영란, 2016). 이러한 정책적 노력은 문화예술인들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학생들의 문화예술 경험이 증가하는 등 여러 차원에서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 내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문화예술에 있어 핵심적인 한 장르인 무용 분야 역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전까지 학교교육의 현장에서 무용은 체육의 한 단원에 포함되어 있어 체육교사들에 의해 가르쳐져 왔으나, 문화예술교육 정책을 통해 전국의 학교에 파견된 약 850여 명의 무용예술강사들이 파견되어 무용을 직접 가르칠 수 있게 된 것이다(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4). 뿐만 아니라, 성인,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아동, 군인 등 다양한 범위의 사람들에게 무용 프로그램이 제공되며 무용교육에의 새로운 실천의 장이 열리게 되었다(이병준, 이유리, 2014).

그러나 문화예술교육 정책을 통해 확산된 무용교육이 국민들의 삶을 실제로 행복하게 하고 있는 것인지는 명확히 알기가 어렵다. 무용교육 지원사업에 대한 수혜자의 만족도, 프로그램 평가 등을 통해 사업의 성과적 측면에 대해서는 파악할 수 있지만, 무용을 통해 실제로 각 대상별 학습자들이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지는 마치 “블랙박스”(Hong, 2006 p.70)의 상태와 같다. 내부에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투명하게 알 수가 없는 것이다. 이 “블랙박스” 안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밝혀내야만 무용교육을 통한 예술적 체험이 학습자의 삶과 행복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지를 논의할 수 있다. 그런 후에야 국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으로서의 무용교육의 질적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석문주, 최은식, 최미영, 2010).

무용교육 분야에서 문화예술교육 내 무용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습자들의 무용에 대한 인식, 신체 만족도, 자기효능감, 정서지능의 변화(김연정, 2012; 김이정, 2011; 김정하, 박현욱, 2012; 김현진, 2013; 박현욱, 2011; 박현정, 김지영, 2012; 이정일, 이성노, 이태현, 2012) 등 그들에게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연구들을 진행해 오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대부분 양적 연구들로 이루어져 있어 통계적으로 파악된 이러한 변인들의 변화가 곧 그들의 삶의 행복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간주하기에는 다소 설득력이 부족하다. 무용경험의 긍정적 차원이 삶에 전이되면서 행복한 삶을 실현하게 해주는 힘으로 작용함을 보여주는 질적 연구도 인문적 체육교육론을 바탕으로 진행되고 있기는 하지만(박소현 2009; 박혜연, 2014; 오현주, 2008), 이들 연구는 대부분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연구 참여자이라는 점에서 다소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 보다 자발적이고 주체적으로

무용활동에 참여하는 이들의 목소리를 통해 무용을 향유하는 체험에 대한 보다 풍부한 이야기가 필요하다. 그래야만 그들이 무용을 즐기는 일이 어떻게 그들의 삶과 행복과 연결되는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무용 프로그램에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오고 있는 성인들의 경험에 초점을 두었다. 이에 따라 ‘무용수업에 참여하는 성인 학습자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무용을 향유하는가’를 연구 주제로 설정하였다. 이들의 무용향유 체험방식을 살펴봄으로써 그러한 체험이 스스로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힘으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학습자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서 이해하고자 하였다. 그들의 몸과 삶에 새겨지는 이러한 체험을 ‘있는 그대로’ 밝혀냄으로써 무용교육의 기능적 개선에 대한 물음이 아니라 근본적인 의미를 묻고자 하는데에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무용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학습자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무용을 즐기고 누리는지를 살펴보는 데에 목적이 있다. 그리고 무용을 향유하는 방식이 그들의 삶과 관련을 갖는지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연구는 2015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총 1년 6개월 동안 진행되었으며, 참여자들의 무용향유체험에 담긴 내적 속성과 의미를 파악하는 일에 주목하기 위해 질적 연구의 패러다임 중 현상학적 체험연구에 근거하여 연구를 설계하였다.

1. 연구 사례 및 연구 참여자

전형적 사례 선택 기법(Miles & Huberman, 1994)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이 대표적으로 실천되고 있는 ‘삼삼오오’팀과 ‘춤꽃마실’팀, 그리고 일반적인 무용수업이 실천되고 있는 ‘발레강좌팀’을 주요 사례로 선정하였다. ‘삼삼오오’팀은 2014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시민참여형 예술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주최한 ‘어른들을 위한 몸놀이 공장, 3355프로그램’에 참여한 참가자들 중 일부가 모여 새로이 팀을 구성한 사례이다. 팀명 역시 ‘3355 프로그램’에서 따온 것이다. 이 팀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연령대는 20대에서 40대로 폭넓은 만큼 직업 또한 주부, 직장인, 학생, 연출가, 예술치유사 등 다양하다. 이 팀은 춤의 기술 향상에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이 움직이는 방식과 형태를 새롭게 인식하고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 몸의 기능과 구조에 충실하면서 보다 자연스럽게 수월하게 움직이는 방법들을 살펴볼 수 있게 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다(박관호, 2016). ‘춤꽃마실’팀은 2012년 ‘춤추는 꽃중년 프로젝트’에서부터 시작된 모임이다. 이 프로젝트는 세대 간 소통과 지역 문화를 살리기 위해 지역문화재단과 문화예술기관이 함께 주최하여 시작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중년 여성을 위한 지역 밀착형 생활 예술 활동이었다. 약 2년의 지원 후에 재단과 기관의 지원은 종료되었고, 이 프로젝트 참여하였던 중년여성들이 자발적으로 다시 모여 ‘춤꽃마실’이라는 팀명으로 현재까지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마지막으로 발레강좌팀은 일반적인 발레수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례이다. 이는 문화예술교육으로서의 수업이기 보다는 동작과 기술의 향상에 초점을 둔 전형적인 발레 수업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문화예술교육의 사례는 아니지만 일반적인 발레 수업에서 일어나는 의미 있는 무용향유체험을 포착해내고자 사례로 선정하였다.

1) 선착순으로 모인 19세 이상 일반인 80명이 10주 동안 주3회 워크숍을 거쳐 작품을 만드는 과정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이다. 춤의 기술 향상에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공유된 하나의 주제를 놓고 이와 관련하여 몸과 움직임을 자유롭게 움직이는 형태로 수업이 진행되었다(중앙일보, 2014년 7월 11일자 기사).

표 1. 연구사례

사례	활동목적	주요특징	참여자 연령
문화 예술 교육	삼삼오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문화재단의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무료 프로그램 (교육자 파견 및 운영 지원) 지원방식에 따라 참여자들이 직접 일정 및 장소 결정 2년차 운영 중 	20대 -40대
	춤꽃마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문화재단의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무료 프로그램 (교육자 파견) 지역문화예술기관으로부터 수업공간 지원 주 1회 진행 5년차 운영 중 	50대-60대
일반적인 발레강좌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레의 기본적인 자세와 동작 배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교에서 교내 구성원을 위해 제공되는 프로그램 매 3개월마다 수업이 새롭게 시작 주 2회 유료수업 	20대-30대

연구 참여자는 총 24명을 선정하였다. 위의 세 가지 사례의 학습자 중에서 무용활동을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2년 이상 지속해 온 사람들을 1차적으로 선정하고 van Kamm(1966)이 제시한 여섯 가지 연구 참여자 선정조건2)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18명의 연구 참여 학습자를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 교육자는 각 사례별 담당 교육자 3명과 문화예술교육의 일환으로 무용 수업을 진행한 경험이 있으며 무용교육경력이 5년 이상 되는 무용 교육자 3명을 추가하여 구성하였다.

2. 자료 수집

van Manen(1990)은 현상학적 연구에서 자료 수집의 방법으로 설문조사, 심층면담, 참여관찰 뿐만 아니라 문학작품, 전기, 일기 등을 검토하면서 연구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고 말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자료 수집의 방법 가운데 수업 안은 물론, 수업 밖 연구 참여자들의 생활에서 나타나는 무용향유체험의 방식을 이해하기 위하여 면담(심층면담과 그룹면담), 수업관찰, 자기보고식 일지를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첫째, 심층면담은 약 8개월 간에 걸쳐 1회 또는 2회의 반구조화된 1:1 면담으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1:1면담 내용의 보강이 필요한 경우 그룹면담을 진행하여, 참여자들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나눔으로써 체험에 대한 자신의 느낌과 감정을 보다 편안히 표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면담의 내용은 참여자의 동의 하에 녹음한 후, 전사하여 파일로 관리하였다. 둘째, 수업관찰은 연구 참여 학습자들이 활동하고 있는 무용수업 현장을 매주 1회 방문하여 비참여 관찰하며, 그들의 활동모습을 영상 및 사진 촬영, 그리고 관찰일지 작성으로 기록하였다. 관찰을 통해 발견되는 중요한 상황 및 맥락에 대해서는 비공식적으로 면담을 요청하여 관찰일지에 추가적으로 기록하였다. 셋째, 연구 참여자들에게 요청하여 수집한 자기보고식 일지는 참여자들이 무용 활동을 하는 동안에 경험하는 무용체험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었다.

2) 연구 참여자 선정에 있어 van Kamm(1966)이 제시한 고려조건은 첫째, 언어로 자신의 체험을 잘 표현할 수 있는가, 둘째, 수줍어하지 않으면서 스스로 없이 자신의 체험을 표현할 수 있는가, 셋째, 이 체험과 연결된 다른 체험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러한 체험들을 표현할 수 있는가, 넷째, 연구 주제에 대한 최근의 체험을 표현할 수 있는가, 다섯째, 자신이 한 체험에 대하여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는가, 여섯째, 자신이 체험한 것을 차분하게 기술할 수 있는가이다.

3. 자료 분석 및 연구의 진실성

지금까지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는 Wolcott(1994)가 제안한 기술, 분석, 해석의 단계와 van Manen(1990)이 제시한 현상학적 체험 연구에서의 자료 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 첫째, 무용향유체험의 방식을 파악하고자 하는 데에 있어서 자료의 기술단계는 단순한 기록의 작업이 아니라 수집된 자료들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그 안에 포함된 의미들을 발견하는 첫 단계로서 매우 중요하였다. 둘째, 자료의 분석의 단계에서는 자료의 내용 자체를 현상학적 텍스트로 읽어내가며, 그러한 텍스트로부터 핵심어구(또는 주제)를 포착하거나 작성하여 범주화하는 작업을 실시하였다(van Manen, 1990). 셋째, 해석의 단계에서는 의미 또는 주제 단위로 묶은 것을 지속적으로 반성 및 성찰하며 독자들이 보고 공감할 수 있는 형태로 표현하는 과정을 거쳤다. 연구의 전 과정에 걸쳐 연구의 진실성(trustworthiness)을 확보하기 위해서 Lincoln과 Guba(1985)가 제시한 신뢰성 준거 중 다각적 자료 수집을 통한 검증, 연구 참여자 검토, 동료 간 협의를 실시하며 과정에 있어서 연구 방법이나 절차, 결론이 타당하고 신뢰할 만한 것인가에 대해 지속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III. 춤으로 행복해지기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무용 수업이나 프로그램은 물론, 그들이 일상의 삶에서 무용을 어떻게 즐기고 있는지를 함께 주목하였다. 그들은 분명 수업상황을 벗어난 시간과 공간에서, 즉 실제 삶이 펼쳐지는 생활세계에서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무용을 즐기고 있었다. 그들이 무용을 즐기는 방식은 크게 ‘기능적으로 향유하기’, ‘유희적으로 향유하기’, ‘공헌적으로 향유하기’의 방식으로 범주화되었다(<그림 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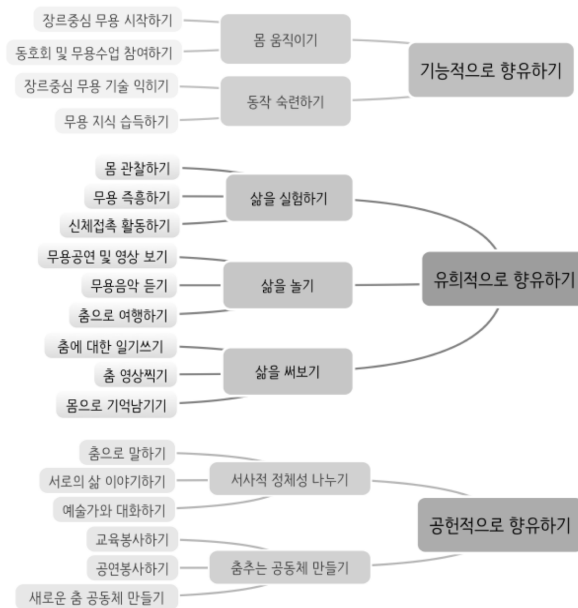


그림 1. 무용향유체험 방식의 범주화 과정

1. 기능적으로 향유하기

연구 참여자들의 무용경험은 대부분 특정 장르의 무용 형식 안에서 동작수행 향상과 기술적 완성을 추구하며 무용을 즐기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는 이를 ‘기능적으로 향유하기’라고 이름 붙였으며, 이에는 ‘몸 움직이기’, ‘동작 숙련하기’의 활동이 포함되었다.

1) 몸 움직이기

연구 참여자들은 “경직된 몸”을 경험한 이야기부터 풀어내었다. 익숙하지 않는 상황에 놓이면 무엇보다 자신의 몸이 그 낯섦을 가장 먼저 감지하여 움츠러들거나 경직되는 경험을 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험은 스스로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이어지고 있었는데, 아래의 윤슬씨의 경우 이러한 인식을 없애기 위해서는 의도적으로 몸을 움직이는 일이 필요하다고 느꼈다고 하였다.

여행지에서 현지인과 함께 하는 거니 너무 재밌어서 신나게 했는데, 막상 하고보니까 갑자기 민망하고 움츠러들기도 하고 그랬어요. 거기 사람들은 모두 재밌어 하는데, 저 혼자 움츠러 들더라고요. 나는 왜 이러지 하면서 제 자신이 좀 싫었어요. 이런 일련의 경험들 때문에 춤을 추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삼삼오오팀_윤슬씨와의 심층인터뷰 중_20161018]

몸은 언제나 내 마음을 따라주지 않는 장애물 같은 존재였어요. ‘나는 오늘 밤을 새야 하는데 왜 따라 주지 않는거야’ 하면서 언제나 즐거움을 주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춤을 배우니까 이것 때문에 내가 즐거울 수 있고 내 마음이 힘들고 지칠 때 몸을 움직여서 그 힘들이가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을 처음 느껴봤어요. 이런 것들이 결합이 되니까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발레강좌팀_사랑씨와의 심층인터뷰 중_20160425]

또 다른 연구 참여자인 사랑씨 역시, “장애물 같은 존재”로 느껴지는 몸을 풀어내기 위해 춤으로 몸을 움직이는 것을 시작하였다고 한다.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몸을 움직이는 경험 자체가 그들의 삶에서 새로운 변화를 만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시작점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몸 움직이기’는 무용을 즐기기 위한 첫 번째 디딤돌 같은 활동이 되고 있었다.

2) 동작 숙련하기

연구 참여자들은 몸을 움직이는 경험을 시작으로 대부분 특정 장르의 무용 한 가지를 선택하여 입문하고 있었다. 그런데, 장르를 불문하고 활동기간이 길어질수록 연구 참여자들은 춤을 잘 추는 몸에 대한 신체적 열망은 물론, 춤을 잘 추기 위한 인지적 노력을 함께 보이기 시작하였다. 이에는 무용동작 연습하기, 동작관련 지식 습득하기, 무용에 대해 학문적으로 공부하기 등의 다양한 활동들이 포함되었다.

기술적으로 단련을 하고 싶더라고요. 제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순간이 와도 제 신체구조상, 그러니까 유연하지 못해서 안되는 부분이 발견되잖아요. 힘이 약해서. 이런 것들을 깨기 위해서 훈련을 하고 싶은거죠. 한참 빠졌을 때는 이런 욕심이 많았어요. [삼삼오오팀_관대씨와의 심층인터뷰 중_20161027]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따라하고 싶다’ 하니까 집에서 동작, 작품영상, 콩쿨영상, 발레리나들 이런거 찾아보고 그랬던 거 같아요. 제 남편은 집에서 저를 거의 발레중독자라고 부를 정도예요. 집에서 매일 영상 찾아보고, 일을 해야되는데 그

거 보느라 일을 안하니까요. (중략) 금요일하고 일요일 빼고 일주일에 다섯 번 클래스를 들어요. 저는 이제 발레 못하면 불행할 것 같아요. [발레강좌팀_낭만씨와의 심층인터뷰 중_20160418]

연구 참여자들이 무용에 대해 보이는 열정과 실제 활동의 범위, 그리고 그 수준은 단순한 일탈 같은 취미활동의 정도에 그치지 않았다. 하루의 시간을 몸, 춤, 무용에 대한 생각과 활동들로 채우고 있었다. 무용을 즐기는 일은 그들의 일상에서 아주 작은 일부가 아니라, 삶의 중심에서 적극적인 방식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기능적 향유는 연구 참여자들이 그동안 몸의 존재와 움직임에 대해 갖고 있었던 부담감, 두려움 등의 부정적 감정들을 떨쳐내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2 유희적으로 향유하기

연구 참여자들은 몸과 움직임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점차 사라짐에 따라 점차 무용기술보다는 자신의 몸과 움직임 자체에 시선을 돌리며 무용을 또 다른 방식으로 즐길 수 있게 되었다. 이때에는 몸과 움직임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지평이 열리며 무용을 흥미진진한 '놀이'로서 생각하게 된 것이다. 장르중심의 무용활동에 벗어나 신체접촉 활동, 무용즉흥, 무용감상 및 공연, 춤으로 여행하기 등 다양한 활동들로 무용을 향유할 수 있는 체험들을 넓혀갔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얻은 가치와 의미를 자신의 삶에 연결시키고 있었다. 즉, 무용을 통해 자신의 삶을 실험하고, 놀아보고, 써보고 무용을 즐기게 된 것이다. 이러한 방식을 본 연구에서는 '유희적으로 향유하기'라고 이름 붙였다.

1) 삶을 실험하기

기능적 활동방식으로 무용경험을 시작하고 반복하던 연구 참여자들은 춤추는 것에 점차 익숙해지자, 규정된 장르의 무용 동작이 아닌 자유로운 몸의 움직임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는 장르 무용 안에서 정해진 무용동작으로 춤을 추는 것만으로는 온전히 무용을 즐길 수 없다는 생각으로부터 비롯된 변화였다.

틀 안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동작들이 제한이 되잖아요. 이름이 붙어있는 기술들을 써야하고요. 스윙을 하면서 제 느낌을 표현하기에는 이 스윙동작으로는 못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노래에서 느껴지는 감정을 도저히 표현을 못하겠다었어요. 저는 뭔가 느껴지면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싶은 욕심이 있는데... [삼삼오오팀_관대씨의 심층인터뷰 중_20161027]

거기서는 사람들하고 (신체)접촉을 많이 시켰었어요. 접촉한 상태에서 뭔가를 해보라고 요구를 했었어요. 눈을 마주치는 것, 몸 어디를 만져보라, 마사지를 할 때도 어디를 마사지를 해보라는 것들요. (중략) 저는 매번 똑같은 움직임을 하는 것이 싫어요. 똑같은 움직임을 하는 순간 지루함을 느껴요. 이건 사실 놀이이고, 놀이라는 것은 새로운 것을 발견해 가는게 재밌는 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맨날 똑같은 놀이만 하면 지겨운 거죠. [삼삼오오팀_윤슬씨의 심층인터뷰 중_20161018]

연구 참여자들은 특정한 무용동작을 따라하고 숙련하는 것에서 벗어나, 다양한 방식으로 자유롭게 자신의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곳을 찾아 나섰다. 그들이 찾은 여러 가지 활동에는 자신과 타인의 몸을 관찰하기, 기술적으로 정련되지 않은 자유로운 움직임하기, 몸과 몸을 접촉하기 등의 활동이 포함되었다. 이것은 그동안 그들이 살면서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일이었고 패턴화된 움직임의 반경을 벗어나는 활동이었다. 이는 자신의 존재와 붙어 다니던

몸이라는 대상을 처음으로 객체화시켜 낯설게 바라보고 새로운 의미를 포착해내는 계기로 작동하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이러한 과정에서 몸과 움직임에 대한 기존의 사고방식에 끊임없는 물음을 던지게 되었다고 했다. 이는 결국 자신의 삶에 대한 물음을 던지는 일이었으며, 물음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실험의 과정과 같았다. 이제 이들이 즐기고 있는 무용이라는 활동은 더 이상 기능적이고 수동적인 것에 머물며 삶과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다. 큰 변수 없이 기술을 반복하는 활동이 아니라 삶에 대한 도전적인 “놀이”로서 관계하는 것이었다. 무용은 연구 참여자들이 “삶에서 궁금해했던 부분을 몸으로 체험하며” 실험하는 과정을 통해 알아가는 재미있는 “놀이” 중 하나였다. 무용은 ‘익숙함’에 응전하여 “새로움”을 발견하는 “재밌는 놀이”이자, 의미 있는 “배움”으로서 자신의 삶에 기여하는 활동으로 의미되고 있는 것이었다.

2) 삶을 놀아보기

연구 참여자들은 무용수업 이외의 일상의 시간과 공간에서도 스스로 춤을 즐기고 있었다. 이것은 앞의 ‘삶을 실험하기’의 방식에서 보다 훨씬 자발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으로 진화되었다. 무용실에서 나오는 순간 춤을 추는 신체적 행위 자체는 사라졌지만, 춤과 관련된 영상을 보거나 음악을 들음으로써 춤을 출 때 느껴지는 즐겁고 기분 좋은 느낌을 불러내어 일상에서도 무용을 즐기고 있는 것이었다.

버스나 지하철에서 이어폰을 끼고 수업 때 음악을 들으면서 바(barre) 동작 순서를 머릿속으로 복기하면서 다녔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이 되면 약간 다른 공간에 와 있는 듯 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공간이 실제로 무용실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하는 순간만큼은 저 혼자만의 무용실에 있는 거였어요. 집에서도 혼자 바를 연습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공간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느낌? 같은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발레강좌팀_사랑씨의 심층인터뷰 중_20160425]

인간을 호모루덴스(Homo-Ludens), ‘놀이하는 인간’으로 정의한 호이징가는 유희에 있어서 자발성은 필수적이라 주장한다(이종인 역, 2010). 연구 참여자들의 이러한 활동은 무용수업에서 제시된 과제도 아니었으며, 특정한 목적을 위한 연습도 아니었다. 자신이 존재하는 공간과 시간 안에서 무용으로 느껴지는 즐거움 자체를 지속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행하고 있는 것이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무용을 놀이하듯 즐기는 자신들의 삶 그 자체를 즐기고 있었다. 즉, 무용을 향유하는 것인 동시에 삶을 향유하는 것이었다. 이를 보다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다. 춤으로 여행을 다닌 관대씨의 이야기이다. 여행객이라면 오래 여행 책자이나 인터넷 정보들을 활용하여 명소나 맛집을 찾아 바쁘게 옮겨 다니기 마련이다. 물론, 과감히 일정을 버리고 여행지에 즉흥적으로 자신의 몸을 맡기는 사람들도 많다. 하지만 그의 여행법은 전자도 후자도 아니었다.

프랑스 오리악(Aurillac) 거리축제 일정에 맞춰 여행 일정을 짜서 갔어요. 그런데 제가 불어나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게 아니라서 공연을 보다 보니까 난버벌인 무용을 보게 됐어요. (중략) 첫 날에는 연극도 좀 보려고 욕심내고 했는데 둘째 날 부터는 거의 댄스라고 되어 있으면 무조건 그것만 가서 봤죠. 그렇게 스케줄을 짜서 여행을 다녔죠. 너무 재밌더라고요.

[삼삼오오팀_관대씨의 심층인터뷰 중_20161027]

춤이라는 키워드로 그 지역을, 그리고 그 곳의 문화를 경험하는 방법이었다. 적지 않은 돈과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가게 되는 해외여행에서 무용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이 몸과 움직임을 키워드로 여행을 다닌다는 것은 춤이 그의 삶의 일부로서 존재한다는 것으로 밖에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이제 연구 참여자들에게 있어 무용을 즐기는 활동은 일상적인 삶의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예외적인 행위처럼 보이지 않는다(채운, 2013). 무용은 연구 참여자들의 삶과 함께 행해지고 있는 것이

었으며, 그것이 그들이 삶을 즐겁고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하나의 방식이었다. 그들의 삶에서 무용은 이제 제외될 수 없는 존재로 위치해 있었다. 자신의 삶을 잘 살아내기 위해 무용은 반드시 함께 있어야만 하는 경험이 되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인 고리씨는 이렇게 놀이하는 것이 우리 개인과 사회를 위해 진정으로 필요하며, 이러한 “격 있는” 놀이가 문화로서 “활성화되고 사회화”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는 “놀이하는 한해서만 진정한 인간이다(안인희 역, 2012, p.128)”라고 주장한 쉐러의 주장과도 맞닿아 있다. 연구 참여자들의 이러한 놀이는 바쁜 삶에서 벗어나 단순히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정도의 오락적 활동이 아니라, 인간의 특별함을 더욱 특별한 것으로 고양시키는 방편이 되는 유희적인 활동인 것이다.

3) 삶을 써보기

연구 참여자들은 유희적으로 무용을 즐기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자신의 몸과 움직임, 그리고 무용을 통해 의미화되는 삶에 대하여 더욱 집중하고 있었다. 특히, 글쓰기라는 방식을 통해 자신이 새롭게 알게 된 몸, 움직임, 무용, 그리고 삶에 대하여 표현하고 있었다.

춤이 아닌 다른 것을 배우러 가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 걸 듣게 되는데 재미없다. 그 이야기 속에서 말하는 화자의 이야기가 담겨있기보다는 타인의 이야기가 들어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춤을 추면 듣게 되는 건 그 사람의 이야기고, 보면서 읽게 되는 건 온전히 드러난 그 사람의 모습이다. 그게 재미있어서 춤을 추러 가는 걸지도 모르겠다. (중략) 즉흥춤에서는 틀린 게 없다. 다른 게 있을 뿐이다. 그래서 다양한 몸들을 보고 있으면 나도 내가 하고 싶은 움직임을 할 수 있다. 다양한 이야기를 볼 수 있는 것과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것. 특히나 몸은 말과 달라서 거짓말을 못하기 때문에 내가 추고 싶지 않는 걸 추면 몸 자체가 불편해서 오래 못 춘다. 틀린 게 없는 즉흥춤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고 다른 분야에서도 틀린 게 없다는 생각은 확산이 된다. 피아노, 패션 등등.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닌 진정 내가 원하는 걸 찾을 수 있는 나로 만들어준다. [삼삼오오팀_윤슬씨의 메모_20161017]

김성수(2013)는 글쓰기는 ‘생각쓰기’이자 ‘삶쓰기’와 같다고 한다.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며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생각쓰기’이며, 글쓰기 자체가 한 인간의 성장이나 삶의 질적 변화에 실질적으로 관여한다는 점에서 ‘삶쓰기’라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윤슬씨가 춤으로 글을 쓰는 활동은 마찬가지로 이해될 수 있다. 윤슬씨가 즐기는 것은 분명 무용이었지만, 그 경험을 바탕으로 글을 쓰며 자신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신체접촉의 경험이 그 자신에게 주는 의미를 자신의 생각으로 풀어내는 ‘생각쓰기’의 과정과 ‘나라는 사람은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는 ‘삶쓰기’ 과정이 모두 실천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흥미로운 것은, 연구 참여자들의 쓰기 활동은 글로 이루어지는 것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움직임 자체가 언어가 되기도 하였다. 예를 들면, 춤으로 여행을 다녔던 관대씨는 그 장소에 대한 경험을 글이 아닌 움직임으로 기록하였다. 보통 우리가 여행경험에 대한 글을 쓸 때는 여행 일정이 끝난 하루의 마지막 즈음에서나 또는 돌아와서 지난 경험을 불러일으키며 쓰기 마련이다. 그러한 과정은 즉각적이기 보다는 사후적이다. 그러나 관대씨는 그 장소에서 ‘지금’의 느낌을 움직임으로 기록했다. 현재의 경험을 즐기고 있는 시간과 공간에서 동시적으로 ‘글쓰기’와 같은 활동을 한 것이었다. 단지 다른 것이 있다면 그는 그 느낌을 문자가 아닌 움직임으로 표현했으며, 종이가 아닌 몸에 기록했다는 점이다.

이렇게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의 몸과 움직임으로 삶을 실험하고 즐기면서, 의미 있는 삶을 몸에 새겨나가고 있었다. 수동적인 태도로 무용을 관조의 대상으로 바라보며 단순히 감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복한 삶을 위한 원천으로서 무용경험을 능동적으로 즐기고 있는 것이었다. 이렇게 무용으로 ‘놀이’하는 연구 참여자들은 주어진 것으로부터 의미를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경험을 통해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있었다. 무용을 향유하는 이러한 방식은 우리를 삶의 능동적인 주체로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인간경험이 되고 있었다.

3. 공헌적으로 향유하기

연구 참여자들의 무용을 즐기는 방식은 자신만의 활동에서 점차 타인을 향한 활동으로 확장되고 있었다. 또한, 그들의 그러한 활동은 단순히 타인을 향해 있기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체험한 무용의 의미와 가치를 타인과 공유하며 결국 자신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는 활동이기도 했다. 즉, 이타성을 지니면서도 동시에 자기중심성을 지니고 있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공통적인 것은 좀 더 나은 삶, 바람직한 사회를 추구하는 활동이라는 것이다.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 안에서 공적 가치를 실현하려 하는 ‘공헌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의 이러한 활동을 ‘공헌적으로 향유하기’로 명명하였으며, 이에는 ‘서사적 정체성 나누기’, ‘춤추는 공동체 만들기’의 활동이 포함되었다.

1) 서사적 정체성 나누기

연구 참여자들은 “이야기하는 주체”(MacIntyre, 1981, p.318)로서 춤을 추며 자신을 알아가고, 이를 통해 자신의 서사적 정체성을 함께 하는 사람들과 공유하고 있었다. 서사적 정체성이란, 리코트(Ricoeur)가 인간의 정체성에 대하여 설명하며 이론화한 개념이다(김애령, 2015). 인간은 이야기를 형식을 통해 삶에 대한 회고 뿐만 아니라, 삶의 계획과 전망을 제시하고 최종적으로 좋은 삶을 추구하는 윤리적 정체성을 갖는 존재라는 것이다(공병혜, 2005). 연구 참여자들에게 있어서 무용은 이러한 ‘이야기’와 다르지 않았다. 앞에서 이야기한 윤슬씨의 메모에서도 드러나는데, 그는 “춤을 추면서 듣게 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그 사람의 이야기이고, 읽게 되는 것은 온전히 드러난 그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하였다. 윤슬씨에게 ‘춤을 본다’는 것은 ‘그 춤을 추는 사람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읽는 행위’이며, ‘춤을 춘다’는 것은 ‘자신의 삶에 대하여 설명하고 해석하여 이야기하는 행위’인 것이다. 무용으로 하여금 우리는 삶에 얽혀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무용으로 우리 삶의 서사를 공유할 수 있는 것이다.

내가 나의 이야기의 주체로서 존재한다는 것은 나의 삶을 구성하는 여러 행위, 여러 경험을 해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MacIntyre, 1981). ‘춤꽃마실’팀의 연구 참여자들은 무용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자신의 이야기를 표현하고 함께 공유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즉, 자신의 서사적 정체성을 마음껏 드러내며, 이를 타인과 공유하는 것 자체를 즐기고 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러한 공유가 최종적으로는 자신을 비롯한 우리에게 더 나은 삶이 펼쳐지는 데에 기여하는 바가 있기를 기대했다. 이들은 춤으로 이야기하는 서사적 존재이자 동시에 더 나은 삶을 지향하는 윤리적 주체로서 무용을 즐기고 있었던 것이다.

2) 춤추는 공동체 만들기

연구 참여자들은 함께 활동 하는 사람들과 “보이지 않는 끈”이 생겼다고 하였다. 서사적 정체성이 공유된 결과물이었다. 이렇게 형성된 유대감을 바탕으로 연구 참여자들은 수업에 참여하는 것을 넘어서, 그들이 함께 사회 속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자발적으로 원하고 있었다.

우리 사회가 너무 각박해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이런 예술적인 활동, 커뮤니티 활동을 하는 게 사회적 치유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의 치유를 도울 뿐만 아니라, 나의 활동이 사회적 치유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거죠.

[삼삼오오팀_고리씨와의 심층인터뷰 중_20161017]

고리씨는 춤을 추는 자신의 활동 자체가 확산이 되면 현재 각박하고 아픈 사회가 치유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예술적인 활동으로 개인과 개인이, 개인과 사회와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고리씨를 포함한 참여자들은 공식적인 프로그램이 종료되어도 꾸준히 만남을 이어가며 춤이라는 활동으로 사회 속에서 역할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리고 이들 각자는 무용 전공자 또는 무용 전문가가 아니기에 개인적으로 활동하기 보다는 각자의 무용경험을 토대로 공동체를 이룸으로써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힘을 모으기를 원했다. 즉, 그동안에 쌓인 유대감을 바탕으로 무용경험이라는 공동의 '자산'과 사회에의 기여라는 공동의 '목적'을 가진 공동체를 이루는 데에 한뜻을 갖고 있는 것이었다.

이는 '실천공동체(Community of practice)'라는 개념과 긴밀히 맞닿아 있었다. 이 개념은 Lave와 Wenger(1991)에 의해 처음으로 사용된 용어이며 지금까지 많은 학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지만 공통적으로는 "공동의 주제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해당 주제 영역의 지식과 기술을 체화하고 체득된 결과를 공유하고 실천함으로써 지식을 창출하는 집단 공동체"(p.82)를 의미한다(전재영, 2012). 특히, 본 연구에서의 '춤꽃마실'팀과 '삼삼오오'팀의 참여자들은 개인적 동기로 무용경험을 시작하였지만, 최종적으로는 '실천공동체'를 이루어 사회에 공헌하는 공동체를 만들고자 준비하고 있었다.

제가 맨날 하는 멘트가 있어요. '저희는 감상용이 아니라, 감동용입니다'. 우리가 무슨 칼군무를 보여줄 것도 아니고, 라인 맞춰서 보여줄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은 감상용이죠. 눈을 즐겁게 해주는. 그러나 우리는 감동용 인거죠. 그만큼 또 진지하게 하니깐요.

[춤꽃마실팀_은혜씨와의 심층인터뷰 중_20161026]

참여자들이 만들고 싶은 실천공동체는 보여주기식의 "감상용" 공연을 준비하는 무용단이 아니었다. 무용전문가도 전공자도 아닌 참여자들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은 "감상용" 무용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감동용" 무용수가 되거나 그러한 공연, 교육프로그램을 만들고 실행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사회에 내재된 아픔과 힘듦이 덜어지기를 바람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였지만, 자신의 삶의 또 다른 의미를 발견하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했다. 사회에 공헌하는 공동체적 존재가 됨으로써 자신의 존재 가치를 소명하는 방식으로 무용을 향유하는 것이 이들 삶의 행복의 원천이 되고 있는 것이었다.

IV. 결론 및 제언

기존의 무용교육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춤추기, 춤 만들기, 춤 감상하기의 세 가지 방식을 중심으로 활동내용을 제공해오고 있다. 이 세 가지 방식은 무용을 전공하는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전공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어 오고 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 활동으로 무용경험의 즐거움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일까.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저마다 다르게 나타나듯, 사람들이 즐거움을 찾는 방법 역시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되기 마련일 것이다. 그 방식의 차이는 무엇으로부터 야기되는 것일까. 연구자는 기존의 세 가지 무용활동으로부터 벗어나서, 사람들이 무용을 즐기는 '있는 그대로'의 방식들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무용 수업이나 프로그램은 물론, 그들이 일상의 삶에서 무용을 어떻게 즐기고 있는지를 함께 주목하였다. 그들은 분명 수업상황을 벗어난 시간과 공간에서, 즉 실제 삶이 펼쳐지는 생활세계에서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무용을 즐기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이 무용을 즐기는 방식을 크게 ‘기능적으로 향유하기’, ‘유희적으로 향유하기’, ‘공헌적으로 향유하기’의 세 가지 방식으로 구분하였다. ‘기능적으로 향유하기’의 방식은 특정 장르의 무용을 선택하여 동작수행의 향상에 목적을 두는 것을 의미한다. 동작과 기술을 습득하고 지식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무용을 즐기는 것이다. 이와 달리, ‘유희적으로 향유하기’는 창조적인 활동에 목적을 둔 방식이다. 우리의 몸과 움직임 자체에 관심을 갖고 이것을 놀이하듯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실험해 보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만의 움직임을 새롭게 만들어내고, 그 과정에서 발견되는 의미와 가치를 자신의 삶과 연결하며 무용을 즐기는 것이다. ‘공헌적으로 향유하기’는 의미와 가치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공유하는 데에 목적을 둔 방식이다. 무용을 즐기는 경험을 하는 동안 발견하고 만들어낸 의미와 가치를 타인 또는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전달하고 공유하여 다같이 더 좋은 삶을 누리보자는 것이다. 이러한 이타적인 활동방식을 통해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고 있었다. 더욱 자신의 삶을 의미 있는 것으로 여기게 됨에 따라 이러한 무용향유체험은 이들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원천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었다.

이 세 가지 방식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되기도, 그 깊이가 더 해지기도 했다. 또는, 같은 방식에 머물거나 여러 방식들을 오가기도 하는 양상을 보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삶에 맥락에 따라 무용을 향유하는 방식이 유기적으로 순환 및 확장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부분 기능적으로 향유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점차 유희적, 공헌적인 향유의 방식으로 나아가고 있었지만 어느 한 가지 방식에만 머물며 유형화되는 것은 아니었다.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심사 중의 하나는 의미를 발견하는 일일 것이다. 의미를 발견함으로써 행복한 삶에 더욱 가까워지기 때문이다. 무용을 향유하는 방식 역시 자신의 삶의 맥락에서 더욱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자신이 삶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방식으로 변화하는 것이었다. 무용교육이 특정한 일부의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세 가지 방식으로 무용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일이 중요할 것이다.

우리의 모든 경험이 그러하듯, 무용을 즐기는 경험 역시 수많은 과정들로 엮여져 있다. 그 수많은 과정은 쌓여진 시간에 따라, 방식에 따라, 사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초점을 두고 다음과 같은 후속 연구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무용향유체험에 대해 보다 집중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행복을 얻는 과정은 단기적으로 어느 삶의 한 장면만을 보고는 충분히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둘째, 무용향유체험에 대한 공동체적 관점에서의 연구가 필요하다. 연구 참여자들이 무용을 향유하는 방식은 개인적인 활동에서 점차 공동체적인 활동으로 범위가 확장되어 가고 있었다. 무용향유체험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위해서는 참여자들이 공동체를 이루었을 때는 어떻게 무용을 향유하는지, 그러한 과정에서 어떠한 의미를 발견하고 가치를 내면화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제안한다.

참고문헌

- 공병혜(2005). 리코르의 이야기적 정체성과 생명윤리. **철학과 현상학 연구**, 24, 61-89.
- 권혁재(2014). “보통 사람 80명의 제멋대로 ‘19금 춤’”. 중앙일보(2014년 7월 11일자 기사). <http://news.joins.com/article/15226167>에서 검색.
- 김성수(2013). 글쓰기는 생각쓰기이자 삶쓰기 : 삶을 가꾸는 글쓰기교육의 이상과 현실. **우리말교육현장연구**, 7(2), 7-38.

- 김애령(2015). 서사 정체성의 구성적 타자성. **해석학연구**, 36, 215-242.
- 김연정(2012). **학교문화예술교육 무용참여가 초등학생의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경기.
- 김윤태(2009). 행복지수와 사회학적 접근법: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는가?. **한국사회학회 심포지움 논문집**, 75-90.
- 김이정(2011). **무용예술강사 수업에 관한 교사와 학생의 인식 및 만족도**.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강원.
- 김정하, 박현옥(2012). 예술통합교육 · 무용이 초등학생의 창의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상과 문화**, 62, 369-392.
- 김현진(2013). **무용교육이 초등학생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무용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대학원, 서울.
- 김홍태, 김영란(2016). 문화예술정책에 관한 제언.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 2016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229-233.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4). **2013 문화예술정책백서**.
- 박관호(2016). **정책사업 하에 실행된 커뮤니티 댄스 프로젝트에 대한 탐색적 연구 : 서울문화재단 3355팀 사례를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서울.
- 박소현(2009). **초등 발레 특기 · 적성 교육에의 인문적 접근: 하나로 수업의 실천 및 효과**.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서울.
- 박현옥(2011).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여고생의 무용 이미지, 신체 만족도의 변화. **한국사상과 문화**, 59, 445-471.
- 박현정, 김지영(2012). 학교문화예술교육으로서 방과 후 무용교육활동에 따른 초등학생의 자기효능감 변화. **한국무용학회지**, 12(1), 63-73.
- 박혜연(2014). **한국무용에서 심성 가르치기 : 한국무용 교수학습과정의 심성교육적 차원 탐색**.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울.
- 석문주, 최은식, 최미영(2010). 외국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 연구: 미국, 영국, 핀란드, 일본을 중심으로. **예술교육연구**, 8(2), 1-19.
- 오현주(2008). **한국 전통춤 교수법의 인문적 접근 탐색: 기존 교수법 분석과 하나로 수업의 적용**.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대학원, 서울.
- 이병준, 이유리(2014). 예술강사의 직업생애사 연구: 학교문화예술교육 무용강사를 중심으로. **문화예술교육연구**, 9(5), 1-20.
- 이정일, 이성노, 이태현(2012). 학교문화예술교육 무용참여가 초등학생의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과학체육학회지**, 21(3), 815-826.
- 전재영(2012). 실천공동체 (Communities of Practice) 의 의미와 도덕교육적 함의. **한국초등교육**, 23(1), 75-93.
- 채운(2013). **예술의 달인 : 호모아르텍스**. 서울: 북드라망.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3). **국가별 학교 문화예술교육 정책 자료집**. 1-188.
- Hong, C. (2006). Unlocking dance and assessment for better learning. In P. Taylor(Ed.), *Assessment in Arts Education*. Portsmouth, NH: Heinemann. 백령, 홍영주, 성진희, 김병주 역(2012). **문화예술교육의 도약을 위한 평가: 쟁점과 원리**(pp. 58-70).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Huitzinga, J. (1944). *Homo Ludens: A study of the play element in culture*. Routledge and Kegan Paul. 이종인 역 (2010). **호모 루덴스: 놀이하는 인간**. 경기: 연암서가.
- Lave, J., & Wenger, E. (1991). *Situated learning: Legitimate peripheral particip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incoln, Y. S., & Guba, E. G. (1985). *Naturalistic inquiry*. Beverly Hills, CA: Sage.
- MacIntyre, A. (1981). *After Virtue: A study in moral theory*. London: Duckworth. 이진우 역(1997). **덕의 상실**. 서울: 문예출판사.
- Maslow, A. H. (1970). *Motivation and Personality*. New York: Harper & Row.
- Miles, M. B., & Huberman, A. M. (1994). *Qualitative data analysis: A sourcebook*. Beverly Hills: Sage Publications.
- Oswald, A. J. (1997). Happiness and economic performance. *Economic Journal*, 107, 1815-1831.
- Schiller, F. (1795). *Briefe uber die asthetische Erziehung des Menschen*. 안인희 역(2012). **미학편지: 인간의 미적교육에 관한 셸러의 미학 이론**. 서울: 휴먼아트.
- van Kaam(1966). *Existential Foundation of Psychology*. Pittsburgh: Duquesne University Press.
- van Manen, M. (1990). *Researching lived experiences: Human science for an action sensitive pedagogy*. London: The Althouse Press. 신경림, 안규남 역(1994). **체험연구**. 경기: 동녘.
- Wolcott, H. F. (1994). *Transforming qualitative data: Description, analysis, and interpretation*. London: Sage.

ABSTRACT

BEING HAPPY WITH DANCE : A Qualitative Inquiry on the Ways of Dance Savoring Experience

Sunyoung Kwon, Euichang Choi(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how dance participants savor dance in various ways. To focus on understanding the internal attributes of research participants' experiences and the meaning behind it, this study was conducted a total of one and a half year of research from July 2015 to December 2016 with phenomenological experience method based on interpretative paradigm. And through traditional case selection (Miles & Huberman, 1994), this study took three cases, of whom two ('3355' team and 'Chumkkonmasil' team) were represented as the best practices in the field of arts and culture education and the other one was a general ballet class team. And considering six conditions of research participant selection proposed by van Kamm (1966), 18 learners and 6 educators were selected as main informants out of three teams. Data collection was conducted by in-depth interview, group interview, class observations, and self report journals, and the analysis of the data was conducted in the recursive process of description, analysis and interpretation proposed by Walcott (1994). As the findings, there were the three ways of dance savoring: technical savoring, playful savoring, and contributive savoring. These three ways of savoring are ones that participants can make more meanings and find happiness in their life, and at the same time, these methods appeared to be reciprocal and cyclical. Lastly, suggestions for follow-up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examine dance savoring experience more intensively and in the long term. Secondly, it is necessary to study not only the individual dance savoring experience but also the community dance savoring experience.

Key words : dance savoring experience, dance, happiness, technical savoring, playful savoring, contributive savoring

논문투고일: 2017. 3. 10

논문심사일: 2017. 3. 21

심사완료일: 2017. 4. 25